

8세 소녀 몸에 갇힌 20대 여성

22세 여성 쇼네이 레이(Shauna Rae)는 생후 6개월 때 희소 뇌종양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부작용 때문에 키가 8세 아동의 평균인 약 116cm에서 멈추고 말았다.

쇼네이 레이의 이 같은 사연은 미국 케이블 채널 TLC에서 내년 초 방영하는 리얼리티 시리즈 '아이 엠 쇼네이 레이' (I Am Shauna Rae) 예고편에서 소개됐다. 영상에서 레이는 "당신이 날 보면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사실 성인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8세 아이 몸에 갇힌 22세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레이가 슬집에 가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때마다 그녀는 미성년자로 오해를 받았다.

레이의 동안 외모는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게 한다. 현재 남자 친구가 없다고 밝힌 그녀는 "밖으로 나서는 게 무섭긴 하지만, 행복해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또 레이의 어머니가 출연해 그녀는 "딸이 평



▲ 인터뷰를 하고 있는 쇼네이 레이, 사진=TLC

생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딸을 지켜주는 것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레이는 "가족으로부터 더 독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레이의 어머니는 "딸이 독립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레이는 "올해 안에 꼭 독립할 것"이라며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호주 출신 시에나 키라(26)는 2018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국에 살고 있는 조지 키우드(27)를 만났다. 키라는 이듬해 런던으로 이주해 키우드와 결혼했고 지난해 첫 아이를 출산했다. 키라는 "영국 BBC 시트콤을 보는데 한 남성에게 시선을 사로잡혔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다."라고 밝혔다.



▲ BBC 시트콤 People Just Do Nothing 에 출연한 조지 키우드 (왼쪽), 사진=BBC

키라의 남편 키우는 2014년부터 BBC 시트콤 'People Just Do Nothing'에 출연 중인 배우다. 183cm 훗칠한 키와 평균 이상의 체중으로 배역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키우드에게 한눈에 반한 키라는 인스타그램으로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연인으로 발전했다. 키라는 "키우드를 만나기 위해 영국행 비행기를

탔다. 실제로 보니 더 매력적이었다. 함께 유럽을 여행한 후에 영국에 놀러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악플러들의 표적이 되었다. 악플러들은 키라를 '꽃뱀' (gold-digger)으로 낙인찍었다. 부부 생활을 공유하는 키라의 SNS에서 비난을 쏟아냈다. "똥똥한 남성을 좋아한다니 말도 안 된다.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게 분명하다.", "사랑이 아니다. 오래가지 못할 관계다."라고 키라를 공격했다. 키우드의 순자산은 30만 파운드(약 40만 달러) 규모다.

키라는 "키가 크든 작든, 말랐든 뚱뚱하든 서로에게 끌린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면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 호소했다.

제자 위해 치마 입은 남자 교사들



▲ Jose Piñas 사진=인스타그램/데일리메일

성 정체성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제자를 위해 스페인의 남자교사들이 치마를 입고 교단에서 화제다. 스페인 우엘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학교에는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5학년 여학생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분명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자로 느끼는 이 학생은 성적 정체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 이 학교의 다른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들이 이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교사들은 우선 여학생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교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남자 교사들이 적극 나섰다. 이 학교의 남자 교사들은 지난 17일부터 치마를 입고 출근하기 시작했다. 네일까지 예쁜 색으로 칠하고 교단에 서는 남자 교사도 있다.

학부모들에게는 통신문을 통해 사실을 알렸다. 교사들은 "성적 정체성을 놓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 모두가 그 학생을 도와야 하니 이해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다행히 학교의 조치에 반발하는 학부모는 1명도 없었다.

한 교사는 "성 정체성 혼란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여학생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다행히 교사들이 전면에 나선 후 괴롭힘은 중단됐다."고 말했다.



Thank You Dental!

Implant Orthodontic General Dentistry



Special 1

Free Consultation

Digital panoramic x-ray & 3D CT

Special 2

Implant \$2,000 \$1,200

환자 맞춤 이식 및 관리
뼈이식시 자가혈 치료 무료 (Reg. \$500)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Thank You Dental에서는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CBCT 구비, 자가혈 CGF 치료, 최상의 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풍부한 임상 경력, 임플란트 전문, 일반치과, 교정치과, 전문 치위생사와 함께 일하는 원스탑 종합 치과

OC (714) 772-5656

1721 W. Katella Ave #A, Anaheim, CA 92804

한인 담당 매니저 Annie

임플란트, 구강외과 교정 전문의 일반 치과 치위생사

Dr. Michael Ahn
Dr. Dan Nguyen
Dr. Young Kim, Dr. Hoang Viet
Kelly Nguyen, Mindy Pham

각종 보험 (PPO) 메디칼 환영